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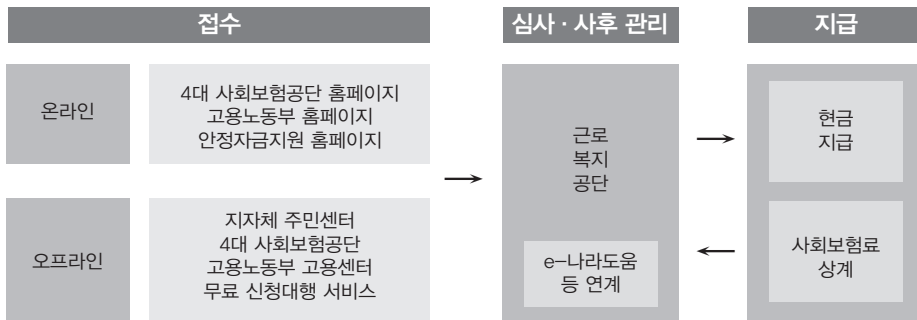
I. 일자리 정책

□ 관계부처합동,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2017.11.09.)

- 정부는 11월 9일(목),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개최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
 - 30인 미만 사업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 원칙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예외) 공동 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이상),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 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인당 월 13만 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 만 65세 이상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무 노동자가 해당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
- 지원금 신청은 사업시행일 이후 연 1회 신청하면 되며, 무료대행(보험사무 대행 기관 신청 업무 대행) 및 상담서비스도 제공(신청서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의 콜센터)
 - 신청서 접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지원금 지급은 현금 지급과 보험료 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급 절차〉



□ 관계부처합동,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2017.11.02.)

- 정부는 11월 2일(목)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
 -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으로,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마련
- 2000년 초반 벤처 붐 이후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점진적·분절적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과 ‘사람’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수 등 양적지표는 양호한데, 기회추구형 창업(美 54%, 韓 21%)과 고학력 우수 인력(석박사: 美 40%, 韓 14%)의 창업이 낮고, 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자 및 모험자본 성격도 美·中 등 주요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부족(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2015년, %) : (美) 0.33 (中) 0.24(2014년 11월) (韓) 0.13)
- 코스닥·M&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 재도전 환경 취약 등 고질적 문제도 지속

○ 따라서,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추진 3대 방향과 세부 과제〉

3대 추진방향	세부 과제	
①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① 기업·대학 등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	사내벤처·분사창업, 대학·출연원 인센티브 개편, 창업유형 다양화
	②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	벤처확인 전면개편, TIPS 방식 확산, 기술금융 활성화
	③ 창업 걸림돌·애로·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	부담금·세금부담 경감, 창업플랫폼 구축,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공간 확충
	④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과 성장지원 강화	성장지원 강화, 혁신형 조달제도(11월 중 발표), 글로벌 스타기업 창출
②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⑤ 재정·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펀드·대출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마련·발표)
	⑥ 벤처투자 확대와 성장과실 공유를 위한 4대 세제지원 패키지 도입	엔젤투자 소득공제, 스톡옵션 비과세, 우리사주 소득공제,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
	⑦ 벤처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 벤처투자 제도 통합, 창업투자 규제혁신
③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⑧ 코스닥 등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12월 중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 발표)
	⑨ 기술혁신형 M&A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 확충	기술·인력탈취 제재, M&A 인센티브 확대
	⑩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연대보증제 폐지, 재기사업자 지원

□ **관계부처합동,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2017.10.18.)

- 정부는 10월 18일(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상정·의결함.
-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 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임.
 -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높은 청년실업·에코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에 따른 당장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
 -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 ‘일자리 양과 질’, ‘일자리를 통한 수요 확충과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 확충’ 과제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작용을 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우리 사회의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됨.
 -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적자본 축적에 효과적이며, EU 주요 국가들에서도 중요한 경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함.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 아직 활성화는 미흡함.
 -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진출 분야 확대 등 Two-Track 전략을 추진
 -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 주역으로 육성

〈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구성〉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 추진과제
① 일자리 인프라 구축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2개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10개
② 공공일자리 창출	③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7개
③ 민간일자리 창출	④ 혁신형 창업 촉진	6개
	⑤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19개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6개
	⑦ 지역일자리 창출	10개
④ 일자리 질 개선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5개
	⑨ 근로여건 개선	9개
⑤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⑩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6개

II. 일자리 통계

◆ 2017년 9월 일자리 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017년 9월 전체 고용률은 61.3%,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0.3%p 상승, 실업률 0.2%p 하락

○ 2017년 9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3.4%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인구는 2,777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3천 명 증가

○ 전체 취업자는 2,684만 4천 명, 고용률은 61.3%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31만 4천 명 증가, 고용률은 0.3%p 상승

–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396만 7천 명, 고용률 42.6%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3만

명 감소, 고용률 0.1%p 상승

- 고졸 이하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172만 2천 명, 고용률 27.6%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5만 1천 명 감소, 고용률은 0.1%p 하락
-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224만 5천 명, 고용률 73.0%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2만 1천 명 증가, 고용률은 0.9%p 감소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 719만 명, 고용률 54.9%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40만 7천 명 증가, 고용률은 1.0%p 상승

○ 전체 실업자 93만 5천 명, 실업률 3.4%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 5만 1천 명 감소, 실업률 0.2%p 하락

-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40만 2천 명, 실업률 9.2%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1만 4천 명 감소, 실업률은 0.2%p 하락
- 고졸 이하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16만 3천 명, 실업률 8.7%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2만 4천 명 감소, 실업률은 0.9%p 하락
-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23만 8천 명, 실업률 9.6%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1만 명 증가, 실업률은 0.3%p 상승
- 고령층(55~79세)은 실업자 16만 2천 명, 실업률 2.2%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7천 명 감소, 실업률은 0.2%p 하락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6.09		2017.08		2017.09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43,488	0.9	43,792	0.8	43,805	317	0.7
경제활동인구		27,516	1.4	27,740	0.8	27,779	263	1.0
참가율		63.3	-	63.3	-	63.4	0.1	-
취업자	전체	26,531	1.0	26,740	0.8	26,844	314	1.2
	남자	15,252	1.2	15,301	0.2	15,335	83	0.5
	여자	11,279	0.8	11,439	1.5	11,509	231	2.0
	고졸 이하	14,685	-0.5	14,633	-0.6	14,688	3	0.0
	대졸 이상	11,846	3.0	12,107	2.5	12,156	310	2.6
• 고용률	전체	61.0	-	61.1	-	61.3	0.3	-
	남자	71.5	-	71.2	-	71.4	-0.1	-
	여자	50.9	-	51.3	-	51.6	0.7	-
	고졸 이하	52.9	-	52.9	-	53.1	0.2	-
	대졸 이상	75.4	-	75.0	-	75.3	-0.1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9,646	0.9	19,883	1.3	19,964	318	1.6
	비임금근로자	6,885	1.3	6,857	-0.6	6,880	-5	-0.1
실업자	전체	986	13.9	1,001	0.5	935	-51	-5.2
	남자	587	10.4	609	0.5	585	-2	-0.3
	여자	399	19.4	392	0.3	350	-49	-12.3
	고졸 이하	548	14.0	509	-9.2	471	-77	-14.0
	대졸 이상	438	13.7	491	12.9	464	26	5.8
• 실업률	전체	3.6	-	3.6	-	3.4	-0.2	-
	남자	3.7	-	3.8	-	3.7	0.0	-
	여자	3.4	-	3.3	-	3.0	-0.4	-
	고졸 이하	3.6	-	3.4	-	3.1	-0.5	-
	대졸 이상	3.6	-	3.9	-	3.7	0.1	-
비경제활동인구		15,972	-0.1	16,051	0.7	16,026	54	0.3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 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 청년층(15~29세)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6.09		2017.08		2017.09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체	3,997	3.4	4,025	-0.5	3,967	-30	-0.7
	남자	1,931	2.1	1,912	-1.5	1,892	-39	-2.0
	여자	2,066	-0.4	2,113	0.4	2,075	9	0.4
	고졸 이하	1,773	2.9	1,780	-2.7	1,722	-51	-2.9
	대졸 이상	2,224	-0.9	2,245	1.3	2,245	21	0.9
• 고용률	전체	42.5	-	43.1	-	42.6	0.1	-
	남자	41.1	-	40.9	-	40.6	-0.5	-
	여자	43.9	-	45.3	-	44.6	0.7	-
	고졸 이하	27.7	-	28.5	-	27.6	-0.1	-
	대졸 이상	73.9	-	72.6	-	73.0	-0.9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739	0.4	3,802	0.3	3,755	16	0.4
	비임금근로자	258	11.1	223	-12.8	212	-46	-17.8
실업자	전체	416	22.3	417	0.3	402	-14	-3.5
	남자	228	15.0	242	0.9	245	17	7.6
	여자	189	32.4	176	-0.5	157	-32	-16.8
	고졸 이하	188	12.9	168	-14.2	163	-24	-12.8
	대졸 이상	229	31.2	249	13.2	238	10	4.2
• 실업률	전체	9.4	-	9.4	-	9.2	-0.2	-
	남자	10.5	-	11.2	-	11.5	1.0	-
	여자	8.4	-	7.7	-	7.0	-1.4	-
	고졸 이하	9.6	-	8.6	-	8.7	-0.9	-
	대졸 이상	9.3	-	10.0	-	9.6	0.3	-
비경제활동인구	4,997	-3.7	4,893	-1.3	4,951	-47	-0.9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 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 고령층(55~79세)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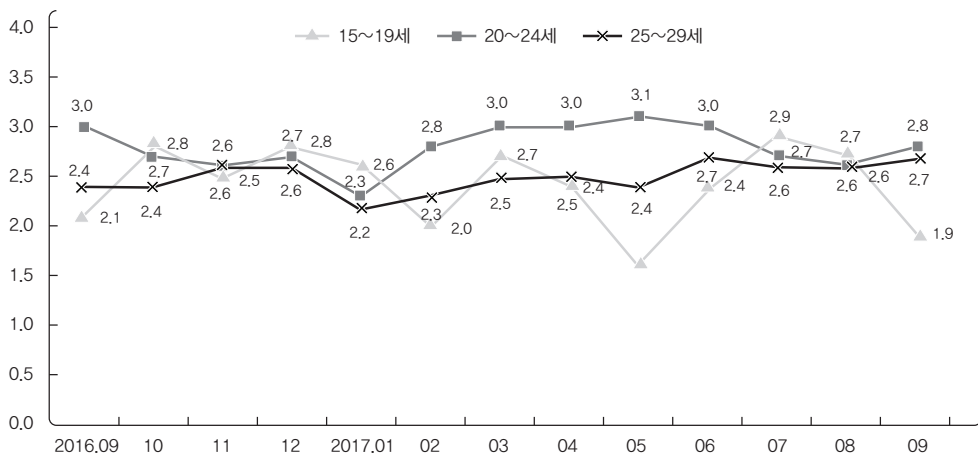
구분		2016.09		2017.08		2017.09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체	6,783	9.6	7,088	4.9	7,190	407	6.0
	남자	3,932	5.7	4,074	3.8	4,111	179	4.6
	여자	2,851	4.3	3,015	6.3	3,079	228	8.0
	고졸 이하	5,600	3.3	5,795	3.8	5,892	292	5.2
	대졸 이상	1,183	14.2	1,294	10.1	1,298	115	9.7
• 고용률	전체	53.9	-	54.4	-	54.9	1.0	-
	남자	66.2	-	66.1	-	66.5	0.3	-
	여자	42.9	-	43.8	-	44.6	1.7	-
	고졸 이하	52.6	-	53.0	-	53.8	1.2	-
	대졸 이상	61.0	-	61.2	-	60.8	-0.2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908	5.9	4,115	5.6	4,195	287	7.4
	비임금근로자	2,875	4.0	2,974	3.8	2,995	120	4.2
실업자	전체	169	16.9	178	3.0	162	-7	-4.0
	남자	114	4.6	122	3.3	116	1	1.1
	여자	54	55.3	56	2.5	46	-8	-14.9
	고졸 이하	144	25.1	143	-0.4	123	-21	-14.4
	대졸 이상	24	-15.6	34	20.7	38	14	56.9
• 실업률	전체	2.4	-	2.4	-	2.2	-0.2	-
	남자	2.8	-	2.9	-	2.7	-0.1	-
	여자	1.9	-	1.8	-	1.5	-0.4	-
	고졸 이하	2.5	-	2.4	-	2.1	-0.4	-
	대졸 이상	2.0	-	2.6	-	2.9	0.9	-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 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017년 9월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대 후반은 0.2%p 하락, 20대 전반과 20대 후반은 각각 0.2%p 하락, 0.3%p 상승

그림 1.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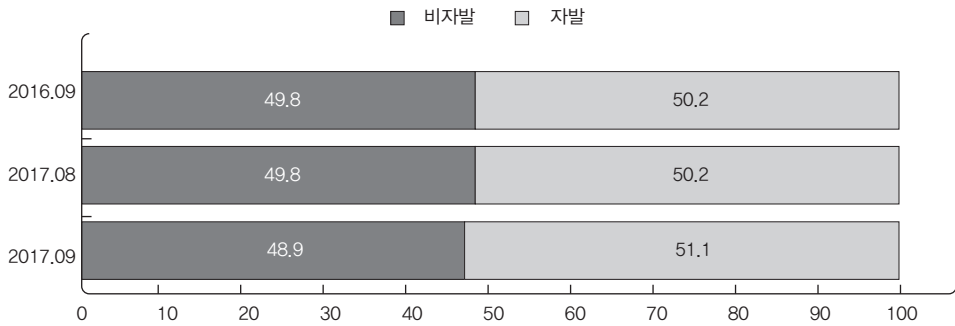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017년 9월 청년층(15~29세)의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48.9%)는 전년 동월 대비 0.9%p 하락

그림 2. 단시간 근로의 이유

(단위: %)



주: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조업 중단으로 인하여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외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017년 9월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68만 4천 명(고용률 14.8%)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6천 명 감소(고용률 1.0%p 하락)

표 4.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6.09		2017.08		2017.09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759	15.8	764	16.5	684	14.8	-76	-1.0	
성별	남자	422	16.3	395	15.9	353	14.4	-69	-1.9
	여자	338	15.3	369	17.1	331	15.4	-7	0.1
학력	고졸 이하	38	1.7	29	1.4	39	1.8	1	0.1
	전문대	162	32.3	167	35.1	150	31.2	-12	-1.1

<표 계속>

학력	대학교	504	26.6	531	27.5	459	24.9	-45	-1.7
	대학원	55	45.0	37	34.9	36	34.4	-19	-10.6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 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017년 9월 청년층(15~29세) NEET족 인원은 80만 9천 명, 비율은 8.7%로 전년 동월 대비 인원 수는 3만 명 증가, 비율은 0.4%p 상승

표 5. 청년층(15~29세) NEET족 규모와 비율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6.09		2017.08		2017.09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증감		
							인원 수	비율	
전체	779	8.3	852	9.1	809	8.7	30	0.4	
성별	남자	445	9.5	496	10.6	465	10.0	20	0.5
	여자	334	7.1	356	7.6	344	7.4	10	0.3
연령별	15~19세	99	3.3	91	3.2	86	3.0	-13	-0.3
	20~24세	354	11.5	411	13.6	376	12.5	22	1.0
	25~29세	326	9.7	350	10.2	347	10.1	20	0.4
학력	중졸 이하	26	1.1	29	1.3	32	1.4	6	0.3
	고졸	442	11.1	470	11.8	427	10.9	-15	-0.2
	전문대졸	89	7.8	115	10.1	112	9.8	24	2.0
	대졸 이상	223	11.9	239	12.2	238	12.3	16	0.4

주: 1)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 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NEET족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 + '미혼 가사' + '발령 대기' + '취업 준비' + '진학 준비' + '군 입대 대기' + '결혼 준비' + '기타' 인원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RIO NET

(작성: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